

위그노 난민과 계몽주의의 전파. 17~18세기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윤 용 선

1. 머리말
2. 긍정 계몽주의와 위그노
3. 지적 계몽주의와 위그노
4. 맺음말

1. 머리말

프로이센 정부의 탄압을 피해 파리로 망명한 시인 하이네(Heinrich Heine)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여겼다. 하이네는 1832년 10월 작곡가 힐러(Ferdinand Hiller)에게 보낸 편지에서 파리 망명의 만족스러움을 전했다. “누군가 귀하에게 제 안부를 묻거든, 물 만난 물고기 같다고 말해주세요. 바다에서 어느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한테 안부를 묻자, 그 물고기가 답하길 파리에 있는 하이네처럼 잘 지낸다고 말했다고 전해주세요.”¹⁾ 프랑스와 파리는 그에게 자유를 갈망하는 혁명의 공간이었으며, 프랑스의 1830년 7월 혁명은 그를 파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조국 프로이센은 모든 정치적 활동이나 비판을 억압했으며, 그래서 그는 생애의 후반을 파리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영면했다.

하이네가 살았던 시대는 150여 년 전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지배하던 17세기 프랑스는 종교적 억압이 극에 달했으며, 수많은 개신교도가 박해를 피해 이주를 선택했다. 종교 갈등에 중지부를 찍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제적으로만 효력이 있었고, 각 나라에서는 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082514)

¹⁾ HSA, Bd.21, p.41. [http://hnp.uni-trier.de/Projekte/HHP/briefe\(2021년 5월 25일 검색\)](http://hnp.uni-trier.de/Projekte/HHP/briefe(2021년 5월 25일 검색))

전히 종교가 갈등과 박해의 원인이었다. 그 결과 17세기 프랑스에서는 발도파(Waldenser)와 위그노, 18세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루터파 등이 박해를 피해 조국을 떠나 이웃 나라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았다.²⁾ 물론 이러한 박해는 시대착오적이었다. 교회가 유럽의 정신세계를 통제하던 시대가 끝나고, 자본주의와 계몽주의가 유럽인의 삶을 물질양면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각 나라의 명운을 갈랐다. 루이 14세는 교회의 통일을 절대왕권 확립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 ‘이교도’ 위그노를 박해했으며, 프랑스는 그로 인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웃 나라에는 프랑스의 이러한 실수가 기회로 다가왔다. 위그노 난민은 유럽국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신교 국가로 해상무역을 통해 일찌감치 경제에 눈을 뜬 영국과 네덜란드는 경제적 엘리트였던 위그노 유치에 적극적이었으며, 대서양 너머 미국(뉴로셸, 사우스캐롤라이나)과 캐나다(퀘벡),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희망봉 등에서도 위그노 난민은 경제적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위그노 이주의 최대 수혜자는 30년 전쟁의 최대 피해자였던 신성로마제국 동북 변방에 위치해 경제적으로 후진을 면치 못하고 있던 프로이센이었다. 위그노는 전쟁으로 급감한 프로이센 인구수를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내수공업 단계에 머물러있던 프로이센에 매뉴팩처를 들여와 장차 도래할 공장제 생산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낙후된 농업국가에 여러 고급 첨단 기술을 전파했다.³⁾

위그노는 경제에서만 시대를 앞서간 것이 아니었으며, 종교적 소수자로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시련은 그들을 합리성과 이성을 내세우는 계몽주의로 이끌었다. 그들은 프랑스 절대왕정 하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었던 정신적 고립 상태를 해외 이주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1685년 낭트칙령 철회는 그들에게 시련을 가져다주었지만 그들의 정신적 잠재력을 자극했으며, 그 결과 그들은 18세기 계몽주의가 도래하고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⁴⁾ 그들은 박해와 뒤이은 이주로 인해 귀족적인 프랑스 문화와 정

2) Klaus J. Bade, “Wanderungstraditionen und Wanderungssysteme am Ende der Frühen Neuzeit”, in *Historical Social Research Supplement* 30 (2018), p. 236.

3) 이에 관해서는 윤용선, 「17~18세기 프랑스 위그노의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이주: 종교적 박해와 기술의 이전」,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55, 2020, 93~120쪽 참고.

신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위그노 난민은 근대가 만개한 17~18세기에 경제/기술과 더불어 새로운 사상을 유럽에서 전파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했다.

줄고에서는 17~18세기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사례를 중심으로 위그노 이주가 정신적인 측면에서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칼뱅주의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궁정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17세기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Friedrich Wilhelm)과 18세기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2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두 번째 주제는 과학을 비롯해 프로이센 문화에 끼친 프랑스의 영향이다. 지리적으로 서유럽과 멀리 떨어진 프로이센이 위그노 난민을 통해 새로운 사상과 경향을 받아들이며 서유럽과 대면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프로이센 과학 아카데미의 탄생과 프랑스어의 확산 등을 살펴볼 것이다.

2. 궁정 계몽주의와 위그노

브란덴부르크 대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철회한 직후 포츠담에서 관용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네덜란드 다음으로 위그노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다. 약 45,000명의 위그노 난민이 브란덴부르크로 이주했으며, 이들 중에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발도파 일부가 섞여 있었다.⁵⁾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⁶⁾은 30년 전쟁의 최대 피해국인

4) Rolf Geissler, "Die protestantische Kontroversliteratur als Wegbereiter des antimetaphysischen Denkens," in *Französische Aufklärung - Bürgerliche Emanzipation, Literatur und Bewußtseinsbildung*, Winfried Schröder ed., Leipzig, 1974, p. 125.

5) Steffe, Albert Martin, *Die Hugenotten. Macht des Geistes gegen den Geist der Macht*. Augsburg, 1996, p. 469.

6)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은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 지기스문트(Johann Sigismund)가 프로이센의 제후로 즉위한 1618년부터 1701년 프로이센 왕국이 탄생할 때까지 사용하던 국명이다.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은 하나의 군주의 지배를 받는 동군연합(同君聯合)이었다. 참고로 위그노 이주민을 받아들인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브란덴부르크

었다. 백작령 루핀(Ruppin)의 경우 온전한 마을은 네 개에 불과했으며, 변경 프리크니츠(Mark Priegnitz)의 여러 도시와 250개 마을에서 살아남은 개신교 목사는 단 한 명뿐이었다. 한 마을에서 한 해에 세례를 받는 어린이가 4~5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인구 또한 급감했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제후가 난민을 받아들여 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으며, 마치 낭트칙령 철회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곧바로 포츠담 칙령이 발표된 것 역시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이 신속하게 위그노 난민 수용을 결정하기까지는 경제적 위기 상황과 더불어 통치자의 사적인 의지도 작용했다.⁸⁾ 브란덴부르크는 이미 17세기 초에 헤센-카셀과 더불어 제후가 칼뱅주의로 개종한 나라였다. 헤센-카셀 제후는 1605년에 칼뱅주의로 개종했으며,⁹⁾ 그의 뒤를 이어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지기스문트(Johann Sigismund)가 1613년 성탄절에 칼뱅파의 일원이 되었다. 개종 바람은 궁정과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도 불었다. 물론 당시 브란덴부르크의 칼뱅파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지기스문트 개종 이후부터 1685년 위그노 난민을 수용할 때까지 칼뱅파는 대선제후 가문, 궁정교회 성직자들, 베를린 추밀원 원로들 정도에 불과했다.¹⁰⁾

그들은 소수였지만 브란덴부르크를 통치하는 집단이었다. 그들의 개종은 호엔츨레른가의 영토 확장과 관련이 있었다. 정치-종교적으로 매우 예민하던 17세기 초 유럽에서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클레베 동군연합을 구축한 브란덴부르크 궁정은 영토 확장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프로

의 선제후이자 프로이센의 제후였으며, 브란덴부르크에서는 그를 ‘대선제후’라 높이 불렀다. 이 글에서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은 공식 국명으로 사용하며, 브란덴부르크는 두 나라 중 하나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브란덴부르크와 프로이센이 동군연합이 아닌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것은 대선제후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프리드리히 1세가 통치하던 1701년으로, 이때부터 국명은 프로이센 왕국으로 바뀐다.

⁷⁾ 위의 책, p. 470.

⁸⁾ Susanne Lachenicht, *Die Freiheitskonzession des Landgrafen von Hessen-Kassel, das Edikt von Potsdam und die Ansiedlung von Hugenotten in Brandenburg-Preußen und Hessen-Kassel*.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2014, p. 71.

⁹⁾ 위의 책, p. 71.

¹⁰⁾ Franz Josef Burghardt, “Brandenburg 1618 - 1688. Hofcalvinismus und Territorienkomplex”, in Herman J. Selderhuis and J. Marius J. Lang van Ravenswaay eds., *Reformed Majorities in Early Modern Europe*, Göttingen, 2015, p. 125.

이센은 브란덴부르크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정통 루터파의 나라였던 반면, 서쪽에 있는 라인강 하류 지역의 클레베에서는 이미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고 있었다. 게다가 정치-종교적인 국제정세 역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구교국가인 에스파냐, 프랑스, 폴란드와 신교 국가인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동군연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갓 태어난 국가 연합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와해할 수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엔츨레른가의 개종은 나사우가와 팔츠 선제후를 중심으로 1600년경에 형성되기 시작한 칼뱅파 네트위크라는 국제정치적 동맹에 보탬을 든 것이었다.¹¹⁾ 개종의 이유야 어쨌든 칼뱅파 지배자가 통치하는 브란덴부르크가 종교적으로 어려움에 부딪친 프랑스의 신앙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처사였다.

위그노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대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할아버지 시대부터 시작된 궁정의 칼뱅주의적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조모와 어머니를 통해 엄격한 칼뱅주의적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¹²⁾ 게다가 그는 청소년기에 네덜란드의 선진문화를 경험한 바 있었는데, 당시 그의 뇌리에 각인된 칼뱅주의 국가의 긍정적 이미지는 위그노 난민 수용을 결정하는데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30년 전쟁이 한창이던 1634년 14세 나이에 브란덴부르크보다 훨씬 안전한 네덜란드로 피난 겸 유학을 떠나 1638년에 돌아왔다. 네덜란드 오랑주 공국 궁정에 머물렀던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그곳에서 개종으로 프랑스를 떠나야 했던 귀족들과 교류했다. 그가 만났던 귀족 중에는 부이용(Bouillon) 백작과 튀렌느(Turenne) 백작이 있었으며, 훗날의 대선제후는 그들로부터 군사제도에 관해 배우기도 했다. 그가 선택한 배우자 역시 오랑주가의 공주이자 위그노 지도자 콜리니(Coligny)의 손녀인 루이즈 앙리에트(Luise Henriette von Oranien)였다.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이웃 나라인 작센-안할트의 제후는 그와 동서지간이 되었다. 이처럼 브란덴부르크 궁정은 포츠담 칙령이 있기 훨씬 전부터 이미 프랑스 신교도와 교류하고 있었다.¹³⁾

11)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개종과 17세기 국제정치적 상황의 상관관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urghardt, 위의 글, pp. 111~114; p. 130 이하 참고.

12) 위의 글, p. 117.

13) Steffe, 앞의 책, pp. 470~471.

네덜란드는 어린 프리드리히 빌헬름뿐만 아니라 위그노에게도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다. 게다가 그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위그노가 그토록 찾았던 반(反)가톨릭 세계였다. 가톨릭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에스파냐와 치러야 했던 80년 전쟁(1568~1648년)의 종식과 더불어 해상무역을 통해 이미 번영을 구가하던 서부 홀란드에서는 대학이 융성하고 있었다. 교회의 통제가 사라진 그곳에는 어떠한 검열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출판할 수 없는 글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외스트라이히(G. Östreich)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러한 문화운동은 유럽 인문주의 전통을 계승했으며,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궁정이 루터파에서 칼뱅파로 개종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¹⁴⁾

한편 서유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17세기 베를린에서는 이렇다고 할만한 부르주아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정신세계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공 기관, 교육 및 사법 분야의 기구, 귀족 아들을 교육하는 ‘기사 아카데미(Ritterakademien)’, 궁정과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 등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장차 도래할 계몽의 시대를 맞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마침내 유럽의 변방 브란덴부르크에도 도달했다. 프로이센의 정치가나 관리 집단의 한 세대는 네덜란드에서 교육 받았다. 그들 이후 세대는 브란덴부르크에서 네덜란드 신스토아학파의 윤리론과 국가론을 공부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예 네덜란드 교과서로 학습했다.¹⁵⁾ 그들은 국가학과 경제학 외에 네덜란드 후기 인문주의가 정초한 종교적 관용론과 자연법을 공부했다. 이처럼 대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훗날 위그노를 자기 나라에 받아들이기로 한 데는 나름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¹⁶⁾ 당시 브란덴부르크의 눈에는 서쪽에서 오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¹⁴⁾ Gerhard Oestreich, *Die niederländische Bewegung und Brandenburg-Preußen. Geschichtliche Einführung in die Ausstellung: Die Niederlande und Brandenburg-Preußen. Ein Jahrhundert geistiger Beziehungen in der europäischen Gelehrtenrepublik*, Berlin, 1968, p. 6 이하.

¹⁵⁾ 위의 책, p. 15.

¹⁶⁾ Frédéric Hartweg, “Sie kamen wie gerufen: Berlins Adoptivkinder, die Hugenotten. Zur kulturellen Wirkung und sprachlichen Assimilierung einer Minderheit”. *German Studies Review*, Vol.8, No.3, 1985, p. 427.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곤경에 처한 난민이라도 그러했다. 위그노의 수용은 경제적 역할에 대한 기대와 브란덴부르크 궁정의 신앙 형제라는 이유 외에도, 이처럼 나라와 대선제후가 네덜란드에서 받은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이미 17세기 말에 탈기독교적 정신세계에 눈을 뜬 대선제후는 말년에 신 중심의 종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의 법칙’을 운운하는 계몽주의적 의식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686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종교의 차이로 발생하는 증오가 크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이 그보다 더 오래되고 신성한 것으로, 인간은 그 법칙에 따라 다른 인간을 참고 인내하며, 죄 없이 굴복해야 하는 이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인간 사회의 이러한 결속은 모든 시대에 걸쳐 문명화된 민족뿐만 아니라 야만적인 민족조차 하나로 묶어준 것으로, 그것 없이는 민족들 간에 어떠한 소통도 이루어질 수 없다.”¹⁷⁾ 이 짧은 글에서 갈등과 증오를 초래하는 종교가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인류의 진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계몽주의적 사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호엔촐레른가의 계몽주의적 분위기는 18세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대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의 증손자 프리드리히 2세는 프랑스 계몽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최초의 독일 군주였다. 그는 즉위 전인 1736년부터 이미 볼테르(Voltaire)와 교류하며 프랑스 초기 계몽주의와 영국 경험론을 공부했다. 그는 연극, 역사서, 철학서, 종교비판 등 여러 분야에서 쓰인 볼테르의 글을 모두 섭렵했다. 그의 이러한 친계몽주의적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됐다. 위그노 출신 가정교사 드 장덩(Duhan de Jandun)의 영향을 받은 그는 프랑스 신문화에 깊이 경도되어 일부러 프랑스어로 말하고 썼으며, 그로 인해 군사력 강화에 골몰하던 ‘군인 왕(Soldatenkönig)’ 아버지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와 갈등했다.¹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가 증조부와 마찬가지로 위그노를 우호적으로 대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18세기에 변방 국가 프로이센을 유럽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은 프리드리히 ‘대제’(2세)는 위그노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치하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황폐해진 도시들을 재건하는 데 이바

17) Oestreich, 앞의 책, p. 31.

18) Jochen Schlobach, “Französische Aufklärung und deutsche Fürsten”, in *Zeitschrift für Historische Forschung*, 1990, Vol.17, No.3, pp. 330~331.

지했으며, 우리나라에 없던 매뉴팩처를 들여왔다. ... 프리드리히 빌헬름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나라는 모자나 양말이나 모직물을 만들 줄 몰랐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다름 아닌 프랑스 기술이었다. 금세 공업자, 보석세공업자, 시계제조업자, 조각가 등이 베를린에 정착했다. 농촌에 정착한 프랑스인은 담배 농사를 짓고, 모래땅 위에 값비싼 과일과 채소를 경작해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었다. ... 그 결과 쿠어마르크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치세에 어떤 선왕의 통치 시기보다 융성해졌다. 귀족의 자체들은 배움에서 즐거움을 찾았으며, 귀족의 어린 자녀들은 대부분 프랑스인 손에 맡겨졌다. 우리가 온화해지고 품행이 방정해진 것은 모두 그들 덕분이다.”¹⁹⁾

프리드리히 2세는 위그노의 업적을 기술의 도입이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찾았다. 그 자신이 18세기 ‘계몽 절대주의(Aufgeklärter Absolutismus)’의 대표적인 군주 중 하나였다. 18세기 계몽주의의 상징이었던 볼테르는 그의 초청으로 무려 2년여 동안 포츠담의 상수시 궁에 머물며 프로이센 왕의 대화 상대이자 교사 역할을 했으며, 프로이센 학자들과 교류했다. 두 사람 사이는 의견 차이로 한때 서먹해진 적도 있었지만, 프리드리히 2세는 누구보다도 볼테르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계몽 군주였다. “그릇된 종교적 열정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 전제군주라면, 관용은 나라의 번영을 위해 애쓰는 자애로운 어머니이다.”²⁰⁾ 그는 종교적 열정과 아집이 적폐로 전락해버린 18세기 유럽에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명료하게 이해했던 군주였다.

18세기 유럽은 과거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세계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것은 계몽주의였다. 프랑스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18세기 프로이센 왕은 17세기에 위그노를 쫓아낸 프랑스 왕과 여러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절대왕권의 확립을 위해 종교적 관용을 철회한 루이 14세가 자신이 곧 국가라고 선언했다면, 프리드리히 2세는 ‘국가의 제일 공복(erster Diener)’이 되고자 했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간주한 절대권력을 손에 쥔 군주의 머리에서 떠오르기 쉽지 않은 자기규정이었다.

¹⁹⁾ Hartweg, 앞의 글, p. 423에서 재인용

²⁰⁾ Gustav Berthold Volz ed., *Die Werke Friedrichs des Großen*, vol. 1, Braunschweig, 2006, p. 201.

프랑스 계몽주의는 프리드리히 2세를 계몽 군주이자 철학자 왕으로 보았다. 볼테르가 1750~1753년에 프로이센 왕의 여름 궁전인 상수시 궁에 체류한 것은 철학과 절대주의의 결합이자, 가르치는 프랑스 문화와 배우는 프로이센 문화의 만남이었다. 신성로마제국의 여러 궁정은 프리드리히 2세의 계몽주의 수용에 자극받았다. 프로이센과 혈연으로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여러 가문은 프랑스 계몽주의자들과 접촉하고자 했다. 그러나 프랑스 계몽주의와 프로이센 군주의 밀월은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프로이센을 여러 번 방문한 볼테르는 1751~1753년에는 포츠담 상수시 궁에 장기간 체류했는데, 이때 프리드리히 2세와 볼테르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백과전서파는 프로이센 왕한테서 반(反)마키아벨리적 이론과 마키아벨리적 정치라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거두었다.²¹⁾ 그러나 프리드리히 2세의 친계몽주의적 성향은 견고했으며, 그는 1757년 볼테르와 다시 화해했다.²²⁾

3. 지적 계몽주의와 위그노

위그노는 단순히 종교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종교에서 시작해 인간의 삶 자체를 새롭게 바라보았다. 박해와 이주라는 이중적 경험은 그들의 정신적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하제(Erich Haase)는 박해와 이주가 위그노의 정신세계에 끼친 영향을 문학에서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낭트칙령 철회 이전에는 혁신적인 사람들조차 단조롭기 그지없는 목소리를 내었다면, 철회 이후에는 마치 철회의 충격이 정신을 흔들어 깨우기라도 한 듯이 새로운 양상들이 나타났다. 망명지로 선택한 나라에서 경험 역시 또 다른 자극이 되었다. 신교도 문학에 표현된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위대한 세기(grand siècle)’²³⁾ 문화의 몰락과 때를 같이했다. 종합주의적 의식체계가 해

21) Jochen Schlobach, “Französische Aufklärung und deutsche Fürsten”, in *Zeitschrift für Historische Forschung*, 1990, Vol.17, No.3, pp. 327~349, p.331.

22) Friederisiko. *Friedrich der Große. Die Ausstellung*. München 2012, p. 209.

체되자, 다양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²⁴⁾ 종교적 박해가 일깨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욕구는 망명지의 새로운 문화와 만남으로써 더욱 증폭되었다.

위그노는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근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민감하고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난민의 처지로 이웃 나라로 이산(離散)한 위그노는 장차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신세계의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할 존재들이었다. 망명 위그노는 전문 지식의 전달자였으며, 기존의 관념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구체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 국내적으로는 프랑스의 정신적 주도권이 가톨릭-라틴적인 남부에서 프로테스탄트-게르만적인 북부로 점차 이동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두 지역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차이를 더욱 확대했다.²⁵⁾

위그노는 계몽주의를 추동하는 집단이었다. 계몽주의자란 도그마를 거부하고 신앙심이 약한 사람으로, 한마디로 말해 세속화된 칼뱅주의자를 의미했다.²⁶⁾ 그러한 부류의 집단은 두말할 필요 없이 위그노였다. 위그노는 독실한 기독교도였지만 신의 전지전능함을 세속에서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칼뱅의 추종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중세 교회와 달리 세속의 현실을 경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에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관념의 세계보다 그동안 도외시해왔던 물리적 세계에 더 많이 주목했다. 위그노는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신뢰하는 세속적인 기독교도였다. 계몽주의는 가톨릭과 거리를 두었지만, 칼뱅주의와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위그노 이주 이전에 이미 계몽주의적 분위기가 조성

23) 루이 13세~14세 치하의 17세기.

24) Erich Haase, *Einführung in die Literatur des Refuge. Der Beitrag der französischen Protestanten zur Entwicklung analytischer Denkformen am Ende des 17. Jahrhunderts*, Berlin, 1990, p. 101.

25) Hartweg, 앞의 글, p. 426. 하르트베의 가톨릭-라틴, 프로테스탄트-게르만이라는 이분법은 르네상스의 관점에서 보면 논란이 될 만하다. 르네상스는 그것이 중세의 끝이든 아니면 근대의 시작이든 간에 라틴적인 북부 이탈리아에서 중세의 ‘게르만적 질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의 관점에서 보면, 중세란 거칠고 투박한 게르만 문화가 지배한 ‘고트적인(고딕)’ 세계였으며, 르네상스란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대 라틴(그레코-로만) 문화를 부활시키려는 시도였다.

26) Wilhelm Hüffmeier, “Was ist, ist durch Vorherbestimmen. Spuren Calvins bei Theodor Fontane”, in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Bd. 107, 2010, p. 240.

되고 있었다. 1667년 4월 22일 발표된 프리드리히 빌헬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칙서는 종교에 상관없이 전 세계의 작가, 학자, 예술가를 브란덴부르크로 이주하도록 초청했다. 칙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통을 받거나 탄압을 받는 이들을 특히 환영한다는 점을 강조해 위그노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했다. 물론 칙서가 내려진 시점은 공식적으로 낭트칙령이 철회되기 18년 전이었지만, 위그노의 저항은 이미 1621년에 시작되었다. 칙서는 여러 기독교 종파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무신론자 지식인 등 모두가 브란덴부르크에 정착할 자격이 있음을 알렸다.²⁷⁾ 칙서는 베를린에 ‘보편대학(Universaluniversität)’과 ‘과학협회(Societät der Wissenschaft)’를 설립하려는 목적에서 발표되었다. 사상의 자유를 찾아 이주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면세, 평화, 중립, 지원, 치외법권, 자치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되었다.²⁸⁾

과학협회 설립을 열정적으로 추진한 인물은 계몽주의의 토대를 정초한 유럽의 대표적 사상가 중 하나인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였다. 그는 과학의 발전이란 이론과 실천, 국민, 농경, 매뉴팩처, 상업 등,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하나로 결합할 때 실현된다고 보았다. 아카데미는 이 과정에서 지식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아카데미는 장차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식을 모은 뒤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²⁹⁾ 그의 아카데미 설립 계획은 전형적인 계몽주의라는 점에서 브란덴부르크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훗날의 위그노 난민 수용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렵지 않게 결정되었다.

라이프니츠의 주도로 탄생한 베를린 과학협회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해온 위그노 정신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다. 협회 창립 초기에 회원의 약 1/3이 위그노였다. 게다가 프랑스어가 협회의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브란덴부르크 지성계에서 프랑스와 위그

27) Carl Hinrichs, “Die Idee des geistigen Mittelpunktes Europas im 17. und 18. Jahrhundert”, in Gerhard Oestreich, ed., *Preußen als historisches Problem*, Berlin, 1964, p. 298.

28) Hartweg, 앞의 글, p.428.

29) 위의 글, pp. 428~429.

노의 위상이 어떠했는가를 짐작게 해준다. 과학 및 학문의 언어로 모국어인 독일어가 아닌 프랑스어가 선택된 것은 협회의 각종 출판물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당시 유럽 지성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프랑스와 직접 소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인 협회 회원 모두가 프랑스어에 능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협회 내에서 위그노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낙후된 변방 국가였던 프로이센은 바야흐로 유럽에 도래하고 있던 계몽주의라는 지성사적 변화의 물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³⁰⁾

오랜 준비 작업 끝에 1700년 문을 연 베를린 과학협회 초대 회장은 당연히 라이프니츠가 맡았다. 위그노는 협회 설립 추진 단계에서부터 참여했으며, 설립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위그노 출신 협회 회원 중에는 저명한 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베를린 프랑스 김나지움의 철학자 쇼뱅(Etienne Chauvin)과 수학자 노테(Philipp Naudé)가 그들이었다. 협회 초기에 두각을 나타낸 또 다른 위그노는 데 비뇰르(Alphonse des Vignoles)로, 그는 신학을 수학과 접목해 이를 성경 연대기 연구에 활용했다. 그 밖에 건축가 드 보(Jean de Bodt), 수학자 당기쿠르(Pierre Dancicourt), 드 골티에(François de Gaultier), 언어학자이자 사서였던 오리엔트 전문가 들 라 크로즈(Mathurin Veyssière de la Croze) 등이 협회의 초기 위그노 출신 회원들이었다. 라이프니츠는 특히 들 라 크로즈를 여러 오리엔트 언어에 능통하다고 추켜세웠으며, 그가 만든 이집트-라틴어 사전은 오늘날까지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³¹⁾ 1701년까지 과학협회의 위그노 출신 회원은 위에서 언급한 7명이었으며, 협회가 왕립 아카데미가 된 다음 해인 1745년에 이르면 15명으로 늘어났다. 당시의 저명한 위그노 출신 학자로는 랑팡(Jacques Lenfant)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드 보소브르(Isaac de Beausobre)와 함께 신약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다.³²⁾

위그노는 18세기 전반에 걸쳐 평균적으로 협회 회원의 10%를 차지했으

30) 위의 글, pp. 429-430.

31) Jens Häsel, "Provinzialismus aus geistiger Assimilation?", in Manuela Böhm ed., *Hugenotten zwischen Migration und Integration*, Berlin, 2005, p. 246.

32) Conrad Grau, "Die Berlin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ie Hugenotten", in Gottfried Bregulla ed., *Hugenotten in Berlin*, Berlin 1988, p. 327.

며, 많을 때는 30%에 달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들은 협회의 핵심적인 구성원이었다. 베를린 최초의 과학 학술지인 *누보 주르날 데 사방(Nouveau Journal des Sçavans)*은 앞서 언급한 쇼뱅이 창간했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역사가자였던 포르메(Jean Henri Samuel Formey)는 거의 반세기 동안 아카데미 회원이었으며, *신독일학도서관(Nouvelle Bibliothèque Germanistique)*의 편집을 주도했고, 디드로(Denis Diderot)가 주도한 백과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1790년부터 베를린에서 목회 활동을 한 목사 앙시용(Jean Pierre Frédéric Ancillon)은 1803년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고, 1809년부터는 국가 자문회의 회원을 겸했으며, 1810년에는 훗날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되는 왕자의 가정교사로 임명되었다. 베를린 왕립 아카데미는 당대 최고의 수학자를 회원으로 거느린 권위가 있는 과학 공동체였다. 스위스 태생의 18세기 저명한 수학자 오일러(Leonhard Euler)는 프리드리히 2세에 의해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그는 무려 25년 동안 베를린에 머물며 수많은 수학 논문을 발표했으며, 아카데미 천문대를 관리했고 *자선 학교(École de Charité)* 이사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인 아샤르(Francois Charles Achard)는 1782년 아카데미 산하 물리학부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사탕무 설탕의 대량생산에 필요한 기술적인 토대를 마련했다.³³⁾

프로이센의 학문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것은 위그노 학자들만이 아니었다. 계몽주의는 출판업과 서점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탄생시켰으며, 베를린 위그노는 이러한 신생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선제후 직할의 출판업자이자 서점상이던 로제(Robert Roger)는 베를린에서 최초로 프랑스어 서적을 출판했다. 베를린 프랑스 이주민 거주지의 판사이자 책임자였던 앙시용(Charles Ancillon)은 1690년 브란덴부르크에 거주하는 프랑스 이주민의 역사를 다룬 책을 자신의 출판사에서 출판했다. 베를린의 에티엔느 드 보르도(Étienne de Bourdeaux) 서점은 1750년경 계몽주의 시대의 프랑스 서적을 판매하는 센터 역할을 했다.³⁴⁾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의 외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놓은 것 역시 프랑

³³⁾ 위의 글, p. 328.

³⁴⁾ 위의 글, p. 333.

스 이주민 출신의 건축가들이었다.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사야르(Jean Louis Cayart), 공타르(Carl von Gontard), 앞서 언급한 드 보, 지이(David Gilly), 지이(Friedrich Gilly), 시몬(Paul Ludwig Simon) 등을 들 수 있다. 공타르는 당대 최고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베를린 프랑스 대성당을 설계했다. 고전주의 정원건축의 대가인 르네(Peter Joseph Lenné)는 왕립 예술 아카데미 명예 회원으로 추대되기도 했다. 끝으로 튀아이용(Louis Tuaillon) 역시 베를린 근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 건축가였다.³⁵⁾ 이들 위그노의 후예들은 유럽의 변방에 있는 베를린을 근대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 덕분에 베를린은 2차 세계대전 중의 파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럽의 고풍스러운 주요 도시 중 하나로 평가된다.

프로이센에서 위그노의 문화적 유산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문학이다. 위그노 출신 유명 작가로는 들 라 모트 푸케(Friedrich de la Motte Fouqué), 알렉시스(Willibald Alexis), 폰타네(Theodor Fontane) 등을 들 수 있다. 알렉시스는 여덟 살에 베를린으로 이주했으며,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의 문화사에 관한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폰타네는 그를 다음과 같이 찬양했다. “그는 최고이자 가장 성실한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만한 자격이 있다.”³⁶⁾ 부모가 위그노 이주민이었던 폰타네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계몽주의적 칼뱅주의에서 ‘이주민의 자부심(Kolonistenstolz)’을 찾았으며, 부모 역시 그러한 자부심을 종종 표현했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힌 바 있다. 위그노는 자신들이 루터파와 달리 민주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 성향을 타고났다고 자부했다.³⁷⁾ 폰타네는 독일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로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다. 아버지의 가업인 약국을 그만둔 그는 한때 언론인으로 런던에 체류하기도 했으며, 1842년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드라마, 역사, 전기, 전쟁서, 편지, 일기, 연극 비평, 신문 기사 등 많은 글을 남겼다.³⁸⁾

³⁵⁾ Gerhard Fischer, *Die Hugenotten in Berlin: Zum 300. Jahrestag des Ediktes von Potsdam*. Berlin, 1985, p. 50.

³⁶⁾ 위의 책, p. 51.

³⁷⁾ Hüffmeier, 앞의 글, p. 252.

³⁸⁾ Rolf Geissler, “Die Hugenotten im literarischen Leben Berlins”, in Gottfried

위그노는 프랑스의 과학과 지성을 프로이센에 전달하고 확대 재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독일의 역사, 철학, 정치사상 등을 유럽 지식계에 소개하기도 했다. 물론 위그노의 이러한 역할은 18세기 프랑스어의 높은 위상 덕분에 가능했지만, 위그노 역시 프랑스어의 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말하자면, 문화 언어로서 프랑스어의 지위와 위그노는 서로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관계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샤리에르(Madame de Charrière)³⁹⁾는 1788년 발표한 *정치적 관찰과 가정(Politische Beobachtungen und Mutmaßungen)*에서 위그노를 받아들인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위그노를 거부한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나 에스파냐에 비해 프랑스어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보았다. “그들[위그노]이 없었다면, 베를린 왕실은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프로이센의 선왕(先王)들 역시 프랑스어로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 네덜란드와 독일 어린이들은 프랑스 교사 덕분에 라 폰텐(La Fontaine)⁴⁰⁾을 암기하고 이내 말할 수 있다.” 물론 프랑스어 보급에 있어 위그노의 역할에 대한 샤리에르의 평가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위그노를 받아들이지 않은 보수 가톨릭인 빈과 뮌헨에서도 프랑스화 경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⁴¹⁾ 계몽주의는 유럽 전역에서 엘리트 집단의 주목을 받을 만큼 새로운 경향이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가 유행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위그노는 계몽주의의 확산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가속페달 역할을 했다.

프로이센의 중상류층 사이에서 주목받았던 위그노는 베를린의 경우 수적으로도 미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베를린에서는 적지 않은 프랑스어 단어가 일상에서 사용되었으며, 프랑스어 이름을 가진 거리 또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프랑스화 경향은 독일 전역에서 나타나던 유행이었으며, 1805년 나폴레옹의 베를린 정복과 무관하지 않았다.⁴²⁾ 그런데도

Bregulla ed., *Hugenotten in Berlin*, Berlin 1988, p.363.

39) 이사벨 드 샤리에르(Isabelle de Charrière)는 네덜란드 출신(네덜란드명 Isabella Agneta Elisabeth van Tuyll van Serooskerken)으로 남동생의 가정교사였던 스위스인(Charles-Emmanuel de Charrière de Penthaaz)과 결혼해 스위스에 살면서 프랑스어로 글을 썼다. 그녀는 프랑스 혁명으로 야기된 프랑스 문학의 공백을 채워 18세기 말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40) 장 드 라 폰텐(Jean de La Fontaine)은 17세기 프랑스의 동화작가.

41) Hartweg, 앞의 글, p. 437.

베를린 시민이 일상에서 만나는 프랑스의 사절들인 위그노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일상에서 독일인들에게 품격있는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어를 눈앞에서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파자들이었다.

초청받은 난민이었던 위그노는 이주 초기부터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위그노를 초청한 포츠담 칙령은 교회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허용했다. 게다가 독일 상류층 사이에서는 프랑스어가 교양 언어이자 사교적인 공용어로 인정받기도 했다. 베를린의 프랑스인 거주지에서는 모든 소통이 프랑스어로 이루어졌다. 법정에서도 위그노가 있으면 통역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어 사용이 가능했다. 위그노 측에서도 프랑스어를 장려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즉, 모국어는 이주민의 집단 정체성과 동질성을 형성하는 주요 수단이었으며, 적지 않은 위그노가 처음에는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이었다.⁴³⁾ 위그노 이주민 1세대는 평생 프랑스어를 사용했다. 물론 그들은 프랑스의 출신지가 달랐기 때문에 대부분 사투리를 사용했으며, 법률가나 의사처럼 고학력자의 경우에만 표준어를 썼다.⁴⁴⁾

프랑스어는 일상 독일어에도 영향을 주었다. 베를린 인구에서 위그노의 비중의 적지 않았으므로 프랑스 어휘가 베를린 독일어에 점차 스며들기 시작했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프랑스어 단어나 표현이 유행했으며, 프랑스인의 발음을 흉내냈다. 그러나 프랑스 이주민은 대개 표준어가 아닌 자기 고향의 사투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발음이 유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늘날 소시지와 함께 베를린의 대표적인 거리음식 중 하나인 고기완자 불레테(Bulette)는 프랑스어 boulette의 변형이며, 전채 요리 라구펑(Ragufeng)은 ragoût fin, 선물집 부디케(Budike)는 boutique에서 유래한 외래어였다.⁴⁵⁾

프랑스어 유행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다. 17세기 말에 쓴 이 글은 당시 베를린의 프랑스어 유행 현상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프

42) 위의 글, p. 440.

43) Helga Schulz, *Berlin 1650-1800. Sozialgeschichte einer Residenz*, Berlin 1987, p. 427.

44) Jürgen Wilke, “Der Einflüsse französischer Sprache und Alltagskultur auf das Berlinische”, in Gottfried Bregulla, ed., *Hugenotten in Berlin*, Berlin, 1988, pp. 392.

45) Frédéric Hartweg and Stefi Jersch-Wenzel, eds., *Die Hugenotten und das Refuge: Deutschland und Europa*. Berlin, 1990, p. 36.

랑스어를 못하는 사람은 궁정에서 일할 수 없다. ... 독일어는 점차 쇠퇴하고, 다른 언어가 유행하고 있다. 프랑스어를 못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기 일쑤다.”⁴⁶⁾ 프랑스어의 유행은 18~19세기에도 계속되었다. 1831년에 발표된 어느 글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독일인의 주린 배를 독일산 쇠고기로 채우기 위해서 *bœuf à la mode*나 *bœuf naturel*로 주문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유행과 모방을 추종하는 우스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프랑스어에 능한 상류층이 프랑스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비꼬는 것이었다.⁴⁷⁾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것이었다. 민족주의적 감정을 건드리는 프랑스어가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⁴⁸⁾ 예나 지금이나 시대의 영향력 있는 외국어는 구직이나 직업 활동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당시 교양 언어이자 외교 언어인 프랑스어 구사 능력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다.⁴⁹⁾ 그러나 정작 위그노 공동체에서 프랑스어는 과거의 위상을 점차 잃어갔다. 위그노 이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18세기에 이르러 후손들 사이에서 프랑스어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⁵⁰⁾

마지막으로 위그노가 프로이센의 정신에 끼친 영향은 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87년 베를린을 방문한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은 베를린의 프랑스 김나지움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학교라고 극찬했다. 무려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학교는 1689년 12월 1일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의 명령으로 설립되었다. “프랑스 난민의 자녀 교육을 위해 우리 비용으로 김나지움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 학교에서 ... 어린이들은 덕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국가를 위해 봉

46) Gerhard Fischer, *Die Hugenotten in Berlin: Zum 300. Jahrestag des Ediktes von Potsdam*. Berlin, 1985, p. 30.

47) Friedrich Kluge,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Berlin/New York, 1995, p. 423.

48) 오늘날 한국 사회 일각에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특히 영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영어 구사 능력은 구직에서 중시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현상일 것이라.

49) Laure Gravier, “Sprachwechsel in der Schule - Erscheinungsformen und Folgen”, in Manuela Böhm ed., *Hugenotten zwischen Migration und Integration*, Berlin, 2005, p. 168.

50) Hartweg and Jersch-Wenzel 앞의 책, p. 31.

사할 수 있도록 무료로 라틴어, 웅변, 철학, 수학 등을 학습할 것이다.” 김나지움의 설립 취지이다. 설립 초기에 김나지움의 교장과 교사는 모두 위그노 출신들이었으며, 수업은 프랑스어로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학교 외부에서 강연하거나 각종 출판물을 통해 독일 사회에 프랑스의 사상과 지적 분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개교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독일 학생들도 입학했는데, 그들은 수업료를 내야 했다. 처음에는 귀족 자녀들만 입학했으나, 1800년경에 이르면 김나지움 학생의 2/3가 독일인이었다. 프랑스 김나지움은 19세기에 엘리트 학교로 발전했다.⁵¹⁾

4. 맺음말

일반적으로 난민이란 외부의 도움이 일방적으로 필요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한다. 낭트칙령 철회를 선언한 1685년 폰텐블로 칙령 직후 위그노가 바로 그러한 경우로, 그들은 난민이었다. 그들은 태양왕으로부터 개종과 망명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받았으며, 다수가 후자를 선택했다. 그런데 그들은 개종을 거부할 만큼 경건한 종교집단이었지만 현실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세속적 신앙인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들이 위기에 처한 17세기 말 유럽 역시 점차 세속적으로 변모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어디서든 환영받는 난민 아닌 난민이었다. 따라서 위그노는 누군가의 자비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일반적인 난민이 아니라 초청받은 이주민에 가까웠다.

유럽의 변방 국가인 17세기 후반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에서는 나라의 미래에 다행스럽게도 선제후를 위시한 지배층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의 주시했다. 게다가 그들은 칼뱅주의가 장차 다가올 세속적 미래에 적합한 종교임을 간파하고 프랑스 왕실과는 반대로 칼뱅주의로 개종했다. 칼뱅주의에 대한 궁정의 존경심은 매우 컸다. 위그노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선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어린 나이에 칼뱅주의 나라 네

⁵¹⁾ Johannes E. S. Schmidt, *Die Französische Domschule und das Französische Gymnasium zu Berlin*. Hamburg, 2008.

덜란드에서 선진문물을 눈으로 보고 배웠으며, 낙후된 변방국 프로이센을 18세기에 신성로마제국을 대표하는 국가로 발전시킨 프리드리히 2세는 계몽주의에 심취한 군주였다. 이름에 ‘대제’라는 경칭이 붙을 만큼 대단했던 그의 업적에 계몽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그를 능력 있는 군주로 만들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계몽 군주는 위그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프랑스 출신 칼뱅파 신민이 프로이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루터파 독일인 신민들 앞에서 대놓고 치하했다.

낙후된 변방 국가가 위그노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었다. 그들의 눈에 띄진 위그노는 자비를 베풀어야 할 난민이 아니라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도록 해주는 조력자였다. 위그노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존중과 함께 항상 어떤 기대가 담겨있었다. 위그노한테 품었던 변방국의 이러한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위그노의 세속적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궁정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과 도움을 제공했으며, 그들은 궁정의 기대에 보답했다. 18세기 프로이센을 계몽주의의 물결 위에 올려놓은 베를린 왕립 아카데미에서 위그노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새로운 사상과 조류를 프로이센에 소개하고, 프로이센의 정신과 과학을 유럽에 전하기도 했다. 프로이센이 아카데미를 통해 계몽주의라는 시대정신과 보조를 같이할 수 있었던 데는 위그노의 기여가 절대 적지 않았다.

참고문헌

- Bade, Klaus J., “Wanderungstraditionen und Wanderungssysteme am Ende der Frühen Neuzeit”, in *Historical Social Research Supplement* 30, 2018.
- Brockhaus Enzyklopädie, 19. Aufl., Bd. 22.
- Burghardt, Franz Josef, “Brandenburg 1618 - 1688. Hofcalvinismus und Territorienkomplex”, in Herman J. Selderhuis, J. Marius J. Lang van Ravenswaay eds., *Reformed Majorities in Early Modern Europe*, Göttingen, 2015.
- Büsch, Otto/Jersch-Wenzel, Stefi/Treue, Wilhelm/Thieme, Hans eds., *Humanismus und Naturrecht in Berlin-Brandenburg-Preußen*. Berlin und New York, 1979.
- Fischer, Gerhard, *Die Hugenotten in Berlin: Zum 300. Jahrestag des Ediktes von Potsdam*. Berlin, 1985.
- Friederisiko. Friedrich der Große. Die Ausstellung*. München 2012.
- Geissler, Rolf, "Die protestantische Kontroversliteratur als Wegbereiter des antimetaphysischen Denkens," in Winfried Schröder ed., *Französische Aufklärung - Bürgerliche Emanzipation, Literatur und Bewußtseinsbildung*, Leipzig, 1974.
- Geissler, Rolf, “Die Hugenotten im literarischen Leben Berlins”, in Gottfried Bregulla ed., *Hugenotten in Berlin*, Berlin 1988.
- Grau, Conrad, “Die Berlin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ie Hugenotten”, in Gottfried Bregulla ed., *Hugenotten in Berlin*, Berlin 1988.
- Gravier, Laure, “Sprachwechsel in der Schule - Erscheinungsformen und Folgen”, in Manuela Böhm ed., *Hugenotten zwischen Migration und Integration*, Berlin 2005.
- Haase, Erich, *Einführung in die Literatur des Refuge. Der Beitrag der französischen Protestanten zur Entwicklung analytischer*

Denkformen am Ende des 17. Jahrhunderts, Berlin, 1990.

Hartweg, Frédéric, “Die Hugenotten in der Berliner Akademie”, in *Humanismus und Naturrecht in Berlin-Brandenburg-Preußen*. Otto Büsch, Stefi Jersch-Wenzel, Wilhelm Treue, Hans Thieme ed., Berlin und New York, 1979.

Hartweg, Frédéric, “Sie kamen wie gerufen: Berlins Adoptivkinder, die Hugenotten. Zur kulturellen Wirkung und sprachlichen Assimilierung einer Minderheit”, in *German Studies Review*, Vol. 8, No. 3, 1985.

Hartweg, Frédéric, Stefi Jersch-Wenzel ed., *Die Hugenotten und das Refuge: Deutschland und Europa*. Berlin, 1990.

Häseler, Jens, “Provinzialismus aus geistiger Assimilation?”, in Böhm, Manuela ed., *Hugenotten zwischen Migration und Integration*, Berlin, 2005.

Hinrichs, Carl, “Die Idee des geistigen Mittelpunktes Europas im 17. und 18. Jahrhundert”, in *Preußen als historisches Problem*, Gerhard Oestreich ed., Berlin, 1964.

Hüffmeier, Wilhelm, “Was ist, ist durch Vorherbestimmen. Spuren Calvins bei Theodor Fontane”, in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Bd. 107, 2010.

Kluge, Friedrich, *Etymologisch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Berlin/New York, 1995.

Lachenicht, Susanne, *Die Freiheitskonzession des Landgrafen von Hessen-Kassel, das Edikt von Potsdam und die Ansiedlung von Hugenotten in Brandenburg-Preußen und Hessen-Kassel*.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2014.

Oestreich, Gerhard, *Die niederländische Bewegung und Brandenburg-Preußen. Geschichtliche Einführung in die Ausstellung: Die Niederlande und Brandenburg-Preußen. Ein Jahrhundert geistiger Beziehungen in der europäischen Gelehrtenrepublik*, Berlin, 1968.

- Schlobach, Jochen, “Französische Aufklärung und deutsche Fürsten”, in *Zeitschrift für Historische Forschung*, 1990, Vol. 17, No. 3.
- Schmidt, Johannes E. S., *Die Französische Domschule und das Französische Gymnasium zu Berlin*. Hamburg, 2008.
- Schoeps, Julius H., “Auf dem Weg zur Glaubensfreiheit. Die Herausbildung des Toleranzbegriffes in Brandenburg-Preußen im Zeitalter Moses Mendelssohn”, in *Zeitschrift für Religions- und Geistesgeschichte*, Vol. 47, No. 3 1995.
- Schulz, Helga, *Berlin 1650-1800. Sozialgeschichte einer Residenz*. Berlin 1987.
- Schumann, Herwart/Kirsten, Christa eds., *Hugenotten in der Berliner Akademie*. Dokumente ihres Wirkens im 18. Jahrhundert, Berlin, 1986.
- Schunka, Alexander, “Konfession und Migrationsregime in der Frühen Neuzeit”,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35, 2009.
- Steffe, Albert Martin, *Die Hugenotten. Macht des Geistes gegen den Geist der Macht*. Augsburg, 1996.
- Volz, Gustav Berthold ed., *Die Werke Friedrichs des Großen*, vol. 1, Braunschweig, 2006.
- Wilke, Jürgen, “Der Einflüsse französischer Sprache und Alltagskultur auf das Berlinische”, in Gottfried Bregulla ed., *Hugenotten in Berlin*, Berlin, 1988.

김충현, 「루이 14세 시대(1661~1678) 위그노에 대한 종교적 강요」,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18, 2008.

박효근, 「위그노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 『프랑스사 연구』, 33, 2015.

윤용선, 「17~18세기 프랑스 위그노의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이주: 종교적 박해와 기술의 이전」,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55 2020.

임승휘, 「두 국가이성의 대립」, 『프랑스사 연구』 1, 1999.

위그노 난민과 계몽주의의 전파. 17~18세기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을 중심으로 405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조교수 / yunyongseon@naver.com)

주제어: 난민, 위그노, 계몽주의,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칼뱅주의

논문투고: 2021.5.21. 심사완료: 2021.7.2. 게재확정: 2021.7.2.

<Abstract>

Huguenots refugees and the Enlightenment in Brandenburg-Prussia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Yun, Yongseon

Louis XIV persecuted the “pagan” Huguenots, considering the unification of the church as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necessary to establish absolutism, and France had to pay a considerable price for it. For neighboring countries, this mistake of French king became an opportunity. The trials that Huguenots had to face as a religious minority led them to the Enlightenment, which advocated rationality and reason.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e state of mental isolation that they could never get out of under the Absolute Monarchy of France through emigration into protestant countries. Dur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when the modern era was in full bloom, the Huguenots migration played a role in spreading new ideas and technology in Europe.

In this paper, focusing on the case of Prussia (Brandenburg)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spiritual effects of the Huguenots emigration. In this regard, first, I would like to pay attention to the courts that were influenced by Calvinism and Enlightenment. Here it will focus on the 17th century Brandenburg elector Friedrich Wilhelm and the 18th century Prussian King Friedrich II. The second theme is the French influence on Prussian culture, including science. To this end, I would like to look into the process of Prussian, geographically far from Western Europe, accepting new ideas and trends through Huguenots refugees and encountering Western Europe.

Key Words: Refugee, Huguenots, Enlightenment, Brandenburg-Preußen, Calvinism